

추계예술대학교

2018년도 제3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구성단위	의원정수	재적의원	참석의원
교원	2	2	2
직원	1	1	1
학생	3	3	1
외부	1	1	1
회의개최 통보일		2018. 7. 3.	

1. 일 시 : 2018년 7월 31일 (화) 15:00 - 15:40

2. 장 소 : 창조관 8층 소회의실

3. 출결사항

○ 참석위원(5인) : 김용배 위원장, 최수환, 이동현, 조예림, 전창하

○ 결석위원(2인): 김민지, 김상훈

4. 부의안

제1호 2018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심의.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 간사 정현주 위원출석 점명에 이어 재적위원 7명 중 5명 참석을 보고 후 2018년도 제3회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

나. 개회

○ 김용배 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들께 감사 인사로 개회하다.

다. 부의안 제1호 2018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심의.

- 김용배 위원장 안건 제1호는 2018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의에 관한 것으로 기획팀 예산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안건 논의하고자 함을 제안하고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예산담당 김백식 입장)

- 김백식 자세한 설명 후에 질문을 청하다.
- 조예림 의원 임의기금적립에 대해 질문하다
- 정현주 간사 임의기금은 건축, 장학, 특정목적으로 나누고 기금통장의 이자 발생금액을 1차 추경에서 적립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 전창하 의원 평생교육원도 이제는 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는 때임을 설명하다.
- 조예림 의원 감소된 장학금은 성적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모두 해당되는지를 질문하다.
- 김백식 근로장학금은 최저임금과도 연관되므로 대상이 아니고 성적장학금이 대상임을 설명하다.
- 이동현 의원 특정목적기금은 국악과로 지정기부된 것인지를 질문하다.
- 김백식 작년 2차 추경 후에 기탁된 지정기부금으로 국악과 실험실습에 사용되도록 결정된 기부금임을 설명하다.
- 이동현 의원 교외장학금 중 5천2백만원은 입학금 감축에 대응한 것인지를 질문하다.
- 김백식 입학금을 감축한 대학에 지급되는 장학금임을 확인하다
- 전창하 의원 대학의 재정상황이 추계예술대학교 뿐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임계점에 도달 했음을 설명하다.
- 김용배 위원장 타 대학 사례를 들어보면 급여의 동결이나 삭감 등의 어려운 현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도 7년간 등록금 감소와 동결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을 감가상각미충당이나 적립금 인출, 그리고 평생교육원 활성화로 버텨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다다른 것이 맞다고 동의하며, A대학의 경우 등록금 수입 감소가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는 의견 공유가 있었음을 덧붙이다.
- 최수환 위원 등록금 인상은 정부에서 막는 것인지를 질문하다.
- 김용배 위원장 등록금인상 상한선이 제시되나 현실적으로 대학은 반값등록금

정책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 동결로 최근 7~8년을 유지해 왔음을 설명하다.


- 최수환 위원 교원의 입장에서 수업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며, 본인의 유학 시절을 기억해 보면 등록금은 굉장히 비쌌으나 학생에게 제공되었던 시설, 교육서비스 등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을 제대로 제공받고 있구나 하는 만족감이 있었음을 설명하다.
- 조예림 의원 재정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다.
- 김용배 위원장 기부금 등 외부자금의 유입과 시설임대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시설임대는 법 마련 이후에 시행할 문제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다.
재정관리 T/F를 조직하여 2학기 동안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설명하다.
- 최수환 위원 수업의 질은 보장되어야 함을 말씀하다.
- 김용배 위원장 우리 대학의 경우 개설과목수도 많고 전임교원 확보율도 타 예술대학보다 좋으며 어려운 재정 환경에도 최근 3년간 교육서비스 확충이 여러 분야에서 이뤄져 왔음을 답변하다. B대학의 경우 최연소 교원이 58년생일 정도로 전임교원 충원이 없었으나 우리 대학은 확보율이 좋은 편이며 이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 것이 현실임을 부연 설명하다.
- 전창하 의원 대학은 경제적 이윤의 사고로 접근할 수 없는 조직임을 설명하다.
- 김용배 위원장 우리 대학은 실습과 실기 위주의 교육서비스로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학과들로 운영됨을 설명하다.
- 이동현 위원 본 심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를 제안하다.
- 전창하 위원 동의하다.
- 전 위원 재청하다.
- 김용배 위원장 이동현 위원의 제안과 전창하 위원의 동의 및 전 위원의 재청으로 원안으로 가결함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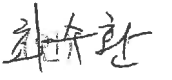


6. 폐회

- 김용배 위원장 기타 의견이 없어 2018년도 제3회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마무리 되었음에 감사 인사 말씀을 끝으로 15:40경 본 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 2018년도 제3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서류 1부. 끝.

2018. 7. 31.

기록 간사 정현주 

위원장	김 용 배 	교수위원	최 수 환 
학생위원	조 예 림 	직원위원	이 동 현 
외부위원	전 창 하 